



Chapter VI

결론

Conclusion

연구 개요

연구 개요

- **연구 목적:** '동학(東學)' 개념을 중심으로 두 사상이 천관지관인간관의 재구성을 통해 동아시아의 자생적 근대성을 구축하였음을 입증
- **연구 배경:** 동학농민운동은 프랑스 대혁명에 버금가는 근대적 운동으로 재평가되고 있으며, 대순사상은 동양의 전통적 사유체계로 근대 이후의 세계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 사상으로 주목받음
- **연구 질문:**
 - 1) 두 사상은 어떻게 동아시아의 자생적 근대성을 구축하였는가?
 - 2) 천관지관인간관은 두 사상에서 어떻게 재구성되었는가?
 - 3) 상관적 사유와 리미널리티 관점에서 두 사상의 특성은 무엇인가?

핵심 논의 요약

핵심 논의 요약

- 동학농민운동의 재평가: 프랑스 대혁명에 버금가는 근대적 운동으로서의 가치
 - 동학사상과 대순사상이 구축한 동아시아 자생적 근대성의 역사적 의의
- 위기에 처한 서양 근대성의 대안: 동학사상과 대순사상의 천관·지관·인간관
 - 만물의 변화를 실체로 보는 서양의 내재성 vs. 속성으로 설명하는 동양의 상관적 사유
- 상관적 사유의 리미널리티: 두 사상의 핵심 특성
 - 리미널리티(경계성): 대립하는 두 요소를 포함하여 조화하는 동양사유의 카오스적 동태성
 - 상관적 사유: 만물이 상호 연결된 프랙탈적 정태성
- 천지인 삼계관: 동서양 근대성을 통합하는 자생적 근대성의 구축
 - 동학사상과 대순사상의 천관지관인간관을 통한 상관적 사유의 재활성화

상관적 사유와 리미널리티

- 상관적 사유 (Correlative Thinking): 프랙탈적(Fractal) 정태적 특성
 - 만물이 상호 연결되어 있다는 관계성 중심의 사유 체계
 - 서양의 실체(substance) 중심 사유와 달리 속성(attribute) 중심의 설명
 - 천지인(天地人)의 유기적 연결성과 상호 영향 관계 강조
- 리미널리티 (Liminality): 카오스적(Chaos) 동태적 특성
 - 문지방, 경계의 뜻으로 통과 의례에서 경계를 통과하는 과정
 - 상호 대립하는 두 요소를 모두 포함하여 대립을 조화시키는 특성
 - 음양의 조화를 추구하는 동양 사유의 변화와 생성에 초점
- 동서양 사유의 차이와 통합
 - 서양: 분석적이분법적 사유 → 주체-객체, 정신-물질의 분리
 - 동양: 종합적순환적 사유 → 천지인의 상호 관계성 강조
 - 상관적 사유의 리미널리티를 통해 동서양 천지인 사유의 통합 가능
- 두 사상의 핵심 방법론: 상관적 사유의 재활성화
 - 동학사상: 작란(作亂)과 포태(胞胎)의 리미널리티로 자생적 근대성 진입
 - 대순사상: 치란(治亂)과 관왕(官旺)의 리미널리티로 자생적 근대성 재활성화

상관적 사유와 리미널리티

동학사상의 특성

동학사상의 특성

- 천사문답(天使問答)과天外천(天外天): 초월적 천(天)의 개념 도입
 - 천지인 삼계에 상관적 사유의 리미널리티를 재활성화하는 계기
 - 서양의 인격신과 동양의 이법천을 통합하는 새로운 천관(天觀) 제시
- 삼계관의 재구성: 새로운 천관지관인간관 제시
 - 시천주(侍天主): 하늘을 모시는 인격적 천관
 - 조화정(造化定): 조화로운 땅의 질서 확립
 - 영세불망(永世不忘): 영원히 잊지 않는 인간의 도리
- 자생적 근대성의 한계: 유교의 전헌(前獻)을 넘지 못함
 - 귀신론적 천지관계, 기화론적(氣化論的) 천인관계, 왕후장상의 지인관계
 - 현실 변혁의 논리로서 한계를 드러내며 농민운동으로 귀결
- 리미널리티의 특성: 작란(作亂)과 포태(胞胎)
 - 작란(作亂): 기존 질서에 대한 저항과 혼란의 리미널리티
 - 포태(胞胎): 새로운 시대를 잉태하는 태동기적 특성
 - 자생적 근대성 진입 단계로서의 상관적 사유 재활성화 시도

대순사상의 특성

- 구천의 인신강세: 대순사상의 천계관 확립
 - 동학사상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신인의도적(神人依導的) 삼계관 구축
 - 무극태극을 정립하여 이법천(理法天)과 인격천의 음양합덕 실현
- 신명과 원한개념 도입: 상관적 사유의 확장
 - 신명계를 통한 천지인 삼계의 유기적 연결
 - 해원상생·보은상생의 종교적 법리 확립
- 삼계관의 재구성: 천지인계의 통합적 관점
 - 인신강세의 천계관, 천지성경신의 지계관, 성사재인의 인계관
 - 여천지동(與天地同)의 원리로 삼계의 상호 교류 실현
 - 지상천국의 천지관계, 천지보은의 천인관계, 지상신선의 지인관계 구축
- 치란(治亂)과 관왕(官旺)의 재활성화: 자생적 근대성의 실현
 - 동학사상의 작란(作亂)과 포태(胞胎) 리미널리티를 극복
 - 천지공사와 수도를 통한 자생적 근대성의 실천적 구현
 - 참동학의 제시: 동학사상을 재활성화한 장기적 리미널리티 실현

대순사상의 특성

두 사상의 비교 분석

두 사상의 비교 분석

- 상관적 사유의 재활성화 과정
 - 동학사상: 단기적 리미널리티에 치중, 재활성화의 진입 기어
 - 대순사상: 동학사상을 재활성화하여 참동학제시, 재활성화의 완성
- 천관지관인간관의 구체적 비교

구분	동학사상	대순사상
천관(天觀)	시천주(侍天主)의 천관	인신강세(人身降世)의 천계관
지관(地觀)	조화정(造化定)의 지관	천지성경신(天地誠敬信)의 지계관
인간관(人間觀)	영세불망(永世不忘)의 인간관	성사재인(成事在人)의 인계관

- 자생적 근대성 구현 방식의 차이점
 - 동학사상: 직란(作亂)과 포태(胞胎)의 리미널리티, 유교의 전현을 완전히 넘지 못함
 - 대순사상: 치란(治亂)과 관왕(官旺)의 리미널리티, 신명과 원한 개념 도입
 - 대순사상은 음양합덕, 삼재확립, 오행구비의 상관적 사유로 동서양 근대성 통합

연구의 의의와 가치

연구의 의의와 가치

- 서구 근대성 위기에 대한 대안 제시
 - 동학사상과 대순사상의 자생적 근대성: 소수 담론이나 동아시아 상관적 사유의 유일한 근대성 담론
 - 기후위기, 핵위협 등 근대성의 총체적 위기에 대응하는 대안적 근대성 제시
 - 동서고금의 천관지관인간관의 장점을 상관적 사유의 리미널리티로 통합
- 동아시아 근대성의 성장 해결방안 제시
 - 한중일 삼국 중 유일하게 상관적 사유 기반의 자생적 근대성 모델 제공
 - 새로운 성장을 위한 모델로서 잃어버린 동아시아 근대성 회복
 - 개인과 공동체 차원에서 적용 가능한 새로운 생존 전략 제시
- 비교사상적 이해 증진에 기여
 - 천관지관인간관을 중심으로 한 비교를 통해 두 사상의 의의와 가치를 융이하게 이해
 - 동서양 사상 및 현대 과학사상과의 비교를 통한 특성 파악
 - 학문적 가치를 넘어 실천적 적용 가능성 제시

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

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

- 기존 근대성 연구 수용 한계
 - 상관적 사유의 천관지관인간관에만 치중하여 기존 근대성 연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함
 - 향후 과제: 생태학 등 다양한 분야의 근대성 연구 성과 반영 필요
- 세부적 논의 부족
 - 천관지관인간관이라는 광범위한 연구 영역으로 인한 세부 논의 한계
 - 향후 과제: 학제간 연구를 통한 더욱 심도 있는 비교 분석 필요
- 구체적 사례 제시 부족
 - 상관적 사유의 자생적 근대성이 성공적으로 구현된 구체적 사례 소개 부족
 - 향후 과제: 다양한 적용 사례와 구체적 연구모델 개발로 대안적 근대성 실현 방안 제시
- 후속 연구 방향
 - 동학사상과 대순사상의 현대적 적용 가능성 모색
 - 기후위기, 핵위협 등 근대성의 총체적 위기에 대응하는 대안적 근대성 모델로서의 실천 방안 연구